## 한라칼럼

# 콩잎과 노루 이야기

**송 창 우**
농부

요사이 바람 부는 날이 꽤 많은 것 같다.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몰아치기도 했고,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도 태풍 급 바람이 거셌다. 이제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도 군데군데 쓰러졌다. 맨땅에서 농사를 짓는 나로서는 날씨를 관장하는 하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농사는 단순하다. 한 해를 펼쳐놓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2~3년 심지어 5년 정도 돼야 수확하는 농사를 짓는 나는 2년 전부터 우영밭 수준에서 먹거리를 재배하고 있다. 오이와 수박, 물외와 청양고추, 가지와 토마토 묘종을 5그루에서 10그루 정도를 심는 정도니 아마추어다. 면적을 크게 하는 프로농부보다 일손이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다른 작물들은 그런대로 우리 식구가 먹을 만큼 재배가 가능하데 문제는 콩이었다. 콩잎 쌈을 해먹을 요량이었다. 여름철 밥상에 오른 물기가 가득한 푸른 콩잎에 밥 한 숟가락을 올리고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잘게 송송 썬 푸른 고추가 들어간 자리젓이나 멸젓과 함께 먹는 그 맛, 입안에 비릿하게 퍼지는 콩잎 냄새와 젓갈과 밥이 어우러져 여름철 포만감과 행복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래서 지난해 콩을 심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훼방꾼'들이 밭에 찾아왔다. 처음에는 꿩이 달려들어 뿌린 콩을 먹고 떡잎이 올라오자 멧비둘기가 훼방을 놓았다. 겨우 몇 그루 남지 않은 콩이 싹을 겨우 올려서 콩잎을 따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줄기만 남겨두고 이파리가 사라졌다. 노루였다. 내일이면 콩잎을 무척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쌈을 싸기 위해 젓갈까지 준비했는데. 그것이 뭐 대수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다림만큼 허탈감도 컸다. 야속했다. 이런 연유로 올해는 꿩과 멧비둘기를 원망하지 않기 위해 묘종을 기르는 포트에 콩을 파종하고 떡잎이 나고 새순이 돋아났을 때까지 키워서 사람과 차량이 종종 다니는 밭에 모종으로 심었다. 노루 망을 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콩잎을 먹기 위해 손바닥만큼 좁은 공간에 그물을 치는 것도 남사스러운 일이어서 노루가 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이파리가 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왜 노루가 이처럼 천덕꾸러기가 됐을까. 우리 부모님이 콩이나 보리를 심어 한 해를 살아가던 당시에도 노루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들 때문에 농사를 망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노루들은 콩을 심은 밭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거리가 널려 있었고, 그들이 숨을 만한 숲과 곶자왈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야생을 파헤쳐 개발하고, 아파트와 빌라를 짓고, 도로를 넓혔다. 그러는 사이 노루는 살 공간을 잃어버렸고,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어죽기도 한다.

숲과 곶자왈 파괴는 봄철에 태풍 수준의 세찬 바람이 불고, 몇 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물 폭탄을 쏟아 붓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후변화를 초래했다는 말은 너무 비약일까. 노루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서식지가 사라지자 우리가 사는 근처로 오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이러스 사태도 비롯됐다는 것 역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 사설

# 세계적 가치 홍조단괴 해빈 "잃을 수 없다"

천연기념물인 우도 홍조단괴 해빈이 계속되는 유실에도 근본적인 보전방안을 마련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도 홍조단괴는 물속에서 광합성을 통해 성장하는 홍조류의 석회화로 돌멩이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이 해빈은 길이 300m 해안에 백사장처럼 펼쳐지면서 세계적인 희귀성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4년 천연기념물 제438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도 홍조단괴 해빈은 심각한 유실을 겪자 제주시가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용역을 실시, 인접한 해안도로와 호안벽을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역에서 제시된 해안도로 대체 우회도로 개설, 현 호안벽 철거 후 친환경적 복원 방안이 장기적 과제로 남겨지면서 해빈 유실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우도주민들은 홍조단괴 해빈의 계속되는 유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작년 말 문화재청을 방문해 새롭게 바닷속 홍조단괴가 해빈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유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안에서 넓미역을 채취할 때 홍조단괴도 동시에 해빈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봤고, 과거 문어작업 시 넣었던 바닷속 통발로 홍조단괴 해빈 유입을 막는 결과를 주고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유입방안 조사 제의는 과거 용역에서 나온 우회도로 개설이나 호안벽 제거의 경우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다 계속 유실되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우도 홍조단괴 해빈 보전방안은 행정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재청이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제주도 역시 내년 관련 용역예산 반영 등을 통해 보전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민들이 계속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홍조단괴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선 안됩니다.

# 공영버스 운영난, 해소할 근본방안 있나

제주지역 공영버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공영버스에까지 직접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승객인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장기간 늦춰진데다 집밖 활동이 크게 줄었으니 말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무료 승객 비율도 늘면서 전체 이용 실적은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영버스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4월 공영버스 이용객은 51만2034명으로 이 가운데 유료 이용객은 29만5369명(58.8%)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58만3565명)에 비해 7만1531명(12.3%)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유료 및 무료 이용객 비율은 지난해 7대3에서 올해는 6대4의 비율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액 손실 규모가 지난해 대비 30%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영버스의 매출이 크게 줄면서 올해 적자폭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등교 개학이 전체적으로 이뤄지면 공영버스 이용률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영버스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등교 개학이 실시된다고 공영버스의 적자폭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영버스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연간 공영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1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상승 등 공영버스에 투입될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버스준공영제를 계속 고수하는 한 '돈 먹는 하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 열린마당

#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입니다

**김 명 규**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화재는 예방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모든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화재로 인해 재산·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심야시간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는 인명 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 깊은 잠을 자는 심야시간대에 화재 인지가 느려져 초기 진화와 탈출을 실패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반복되는 주택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각 층·세대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을 정도로 큰 위력을 발휘한다.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발생시켜 화재를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의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번 구입하면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구입해 가정에 설치할 것을 권한다.

불의의 화재를 미리 예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비한다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뉴스-in

# 도내 골프동호회 수사 중단 국민청원

### 코로나19 100일 사진기록전

○…제주도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활동과 선제적 대응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100일 사진 기록'에 대한 순회 사진전을 마련해 눈길.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사진전은 도청 본관과 제2청사,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2~3주에 걸쳐 이뤄질 예정.

사진전에는 생생한 방역현장을 비롯한 도민들의 자발적 방역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제주공항의 출·도착 발열카메라 및 위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드라이브 스루 실시 등 26점이 전시돼 볼거리를 제공. 백금탁기자

### "동호회 지켜달라" 호소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 수사(**본보 5월 20일자 4면 보도**)를 받고 있는 A 골프동호회가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리며 수사 중단을 촉구.

A 동호회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운영해온 동호회를 지켜달라"고 호소.

한편 A 동호회가 '순수 운동동호회의 검경수사 중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750여명이 참여. 김현석기자

### 밝은 거리 조성사업 호응

○…남원읍이 지역 내 주요 도로변·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추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호응.

남원읍은 지역 내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노후된 가로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야간에 조명이 어두워 민원이 잦은 도로에는 고효율 LED 가로등을 신설하는 등 사업을 완료.

현창훈 남원읍장은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과 함께 안전한 야간 통행환경 만들기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천명. 현영종기자


**부 고**

**허인지**(前 초등학교 교장·국가유공자) 부인, **허용혁·원혁** 어머니 **동래정씨 갑년**(향년 87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24일 20시 5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5월 27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5월 28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3분향실(2층)
▶장 지: 호근동 가족묘지(호근동 931-2)

남 편 허인지
아 들 허용혁 며느리 강연복
원혁 김인희
딸 허혜선 사 위 오대방
혜숙 오성찬
혜정 김병진(경수)
손 자 허선호 외손자 오동환
준호 외손녀 오진영(수은)
우남 소영
손 녀 허지원 주형
주현
김 나연
나한

※ 연락처 : 허용혁 010-7315-3368
허원혁 010-3692-3322
허혜선 010-5693-4406
허혜숙 010-6686-9949
허혜자 010-7527-2683

**부 고**

**토평공업단지 협의회 고화백** 회장님 (향년 83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25일 11시 5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5월 26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5월 27일(수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별관
▶장 지: 서귀포 충혼묘지

배우자 이위자
아 들 고상택 며느리 진혜영
딸 고복자 사 위 박흥수
금희 안성수
수연 신재환

※ 연락처 : 고상택 010-2878-3969

토평공업단지협의회
회원일동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525 (2013고단867, 2016고단1231, 2016고단2859) 업무방해등
• 피 고 인 송 강 호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5. 25.

판사 박 준 석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현장실무 전기공사 기능인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대 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근시일 모집 마감
**실업자 / 구직자**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등 제외

교육기간
7월초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축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